

[사회]

고속도 휴게소·버스 터미널 판매 김밥·햄버거 식중독균 검출 '충격'

식약청, 252건 검사... 광주·전남서도 3건 발견

전국 고속도로·국도 휴게소와 버스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판매되는 김밥과 햄버거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일부 휴게소 햄버거에서는 식중독과 화농성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의 11배 이상 검출됐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최근 전국의 고속도로와 국도 휴게소, 버스터미널, 기차역, 공항 등 134개 시설에서 판매되는 김밥과 햄버거 등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252건 가운데 15건에서 식중독균 등이 검출됐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광산구의 한

시외버스터미널, 함평의 모 휴게소, 순천의 한 기차역에서 판매되는 김밥에서 식중독균이 발견됐다.

식약청의 조사 결과 수거된 김밥을 검사한 125건 중 13건, 햄버거 검사 77건 가운데 2건에서 '황색포도상구균'과 '바실러스세레우스' '대장균'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 식중독균이 검출된 제품을 판매한 15개 업소의 행정처분을 관할 기관에 의뢰했다.

식약청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철에는 세균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 4시간이면 식중독을 발생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증식하게 되므로 음식물 섭취 전 손을 깨끗이 씻고, 어패류 등

은 익혀 먹으며, 물은 반드시 끓여서 마시는 생활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밥, 샌드위치 등 이동 과정에서 쉽게 섭취할 수 있는 음식물은 필요한 분량만 구입하거나 만들어서 가급적 바로 섭취하고, 남은 음식물은 반드시 아이스박스에 차게 보관하며, 상온에 오래 방치됐거나 의심되는 음식물은 미련없이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여름철에는 어패류 섭취에 의한 장염비브리오균과 오염된 손으로 조리된 김밥, 햄버거 등에서 생기는 병원성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등이 주로 식중독을 일으킨다"고 설명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23일 오후 정읍 역불산에 위치한 정남진 천문과학관을 찾은 장흥 관산초교 4학년 학생들이 천체망원경으로 태양 흑점을 관찰하고 있다. 정남진 천문과학관은 다음달 17일까지 '여름 밤 별빛 속으로'를 주제로 오후 2시부터 밤 12시까지 관측행사를 갖는다. /위정량기자 jrwi@kwangju.co.kr

대지 식하는 비 7월 24일 (음 6월 22일)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았으며 한 두차례 비가 오겠다.

구분	지역	기온
광주	한 두차례 비	25~32℃
	구름 많음	24~30℃
여안	한 두차례 비	25~29℃
	한 두차례 비	25~30℃
완구	한 두차례 비	24~32℃
	한 두차례 비	24~30℃
해장고	한 두차례 비	24~30℃
	한 두차례 비	24~30℃
순천	한 두차례 비	24~30℃
	한 두차례 비	24~32℃
영진	한 두차례 비	24~31℃
	구름 많음	24~32℃
전남	한 두차례 비	24~31℃
	한 두차례 비	23~31℃
충남	한 두차례 비	22~27℃
	한 두차례 비	22~27℃

▶해돋이 05:35 ▶해질 19:42 ▶달돋이 22:46 ▶달질 11:15
▲주간날씨 기상내선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5(금)	26(토)	27(일)	28(월)	29(화)	30(수)
날씨						
최저/최고	25/31	26/30	25/32	25/32	26/32	26/32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유보

협상시한 28일까지 연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병원사용자협의회는 23일 중앙노동위원회 중재로 조정만료 시한을 오는 28일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오전 7시부터 돌입하기로 했던 총파업을 28일까지 일단 유보하기로 했다.

이주호 보건료노조 정책기획실장은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조정기간을 오는 28일까지 연장하기로 사측과 합의했다"며 "실무교섭을 벌인 뒤 28일 오후 2시에 속개될 조정회의에서 남은 쟁점들을 모두 일괄 타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업이 유보됨에 따라 전날 파업전 야제를 벌이고 이날 오전 무기한 전면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던 강진의료원과 1일 전면파업 예정이었던 광주기독병원 조합원들은 근무지로 복귀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노사 양측은 22일 오후 2시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서울 마포구 중앙노동위에서 노조가 요구했던 산별교섭안 86개 중 74개에 대해 의견접근을 이뤘지만, 핵심 쟁점인 임금인상안 등 12개 안은 타결되지 못했다.

노조는 애초 협상안이었던 임금 10.2% 인상안에서 한발 물러나 5%대 인상안을, 사측은 4%대 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노사 '우선채용' 합의, 강제성 없다"

광주지법, 기차차 계약직 사원확인 청구소 기각

노사간에 맺은 '우선채용' 합의의 강제성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6부(김병하 부장판사)는 23일 기차자동차 노사가 맺은 우선채용 합의문을 근거로 정규직 채용을 요구한 전 기차차 계약직 사원 정모(24)씨의 사원확인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용을 희망할 경우 인력 수급계획에 따라 신규채용 시 적합한 인원에 한해 우선채용키로 한다"는 합의문 조항을 원

고의 채용 신청만으로 회사가 당연히 채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2003년 5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기차차에서 계약직 사원으로 근무한 뒤 입대했으며, 이 사이 기차차 노사는 '1년 간 근무한 계약직 사원은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근무필자의 경우 재대 후 채용을 희망할 경우 신규 채용 시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합의문을 채택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유혹깡' 거액 세금포탈 업소 대표에 징역 선고

광주지법 형사4단독 장정희 판사는 23일 속칭 '유혹깡'을 통해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여신전금융업법 위반 등)로 기소된 유혹업소 대표 정모(41)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모(50)씨에 대해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00만원을, 이모(47)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다음 '한메일 접속사고 피해' 55만명

포털사이트 다음이 한메일 오류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55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다음 관계자는 22일 발생한 한메일 오류에 대해 "22일 오후 3시10분 장애가 발생, 오후 4시부터 차단 작업에 들어가 오후 4시10분께 차단이 완료됐다"며 "장애 시간대에 한메일에 접속한 이용자는 전체 55만여명"이라

고 밝혔다. 또한 다음은 이 시간대 한메일에 접속한 이용자들끼리만 메일함이 교차로 노출됐다고 확인하고, 이에 따라 전체 피해자수는 55만명을 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카페 목록 노출과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 추가 피해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중이라고 다음은 덧붙였다.

/연필뉴스

이번엔 롯데 과자서 녹스 10원짜리 나와

롯데제과 과자에서 녹스 10원짜리 동전이 발견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혼입 경우 조사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서울시 장안동에 사는 한 소비자가 롯데제과 '오굿 씨리얼 초코' 제품에서 검은 덩

어리가 엉겨붙은 10원짜리 동전을 발견, 18일 업체에 이 사실을 알렸다. 회사는 이물질 민원이 발생한 후 즉시 식약청에 보고하도록 한 지침을 지키지 않고, 언론에 알려진 후인 22일에야 뒤늦게 보고했다고 식약청은 전했다.

식약청은 이물질 혼입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제품이 생산된 롯데제과 장안동에 사는 한 소비자가 롯데제과 '오굿 씨리얼 초코' 제품에서 검은 덩

/연필뉴스

초중고생 독도교육 강화 광주시교육청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14일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 초·중·고교생들에게 독도 교육을 강화하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23일 공문을 통해 역사과·사회과 등 관련 교과교육과 재량활동 시간 활용, 여름방학 과제물 부과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방법의 독

도 교육을 제시했으며 학교 실정에 맞게 실시하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또 교사연구모임인 '동북아 역사 연구회(회장 윤영주·전대사대부중 역사 교사)'에 의뢰해 독도 관련 교수학습 자료들을 정리, 단행본으로 발간해 일선 학교에 보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22일 광주시 초·중등교장협의회는 '독도 수호 결의문'을 채택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침구학·대체의학 연수생 모집

- 연수과목** 침구학, 뜸학, 산후, 안, 무위, 화생, 독물, 약침, 침구수업, 침구기초, 침구심화수업, 침구학기초
- 선배과목** 수침요법, 침구학, 침구, 침구학, 침구학(사) 침구학, 침구학(사) 침구학
- 연수기간** 4개월(월요일 ~ 목요일) 09:00~12:00
4개월(월요일 ~ 목요일) 17:00~20:00
- 연수장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길 15 (신사동) CH중국어문화원

7월 25일 금요일 오후 2시~5시 (학비 차라할때 2만원~30만 원)

CH중국어문화원 | 광주분원 www.wchina.co.kr | 1544-5359

산행안내

7월 25일 금요일 오후 2시~5시 (학비 차라할때 2만원~30만 원)

CH중국어문화원 | 광주분원 www.wchina.co.kr | 1544-5359